**보도자료 06**

****

**올가을,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로맨스 명작!**

**김태용 감독과 함께하는 스페셜 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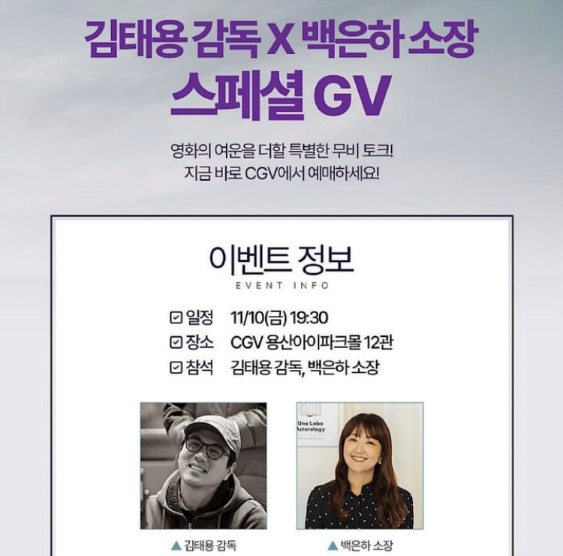
**11월 10일(금) GV 개최! 예매 오픈 당일 매진!**

**2011년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가을 로맨스 명작으로 사랑받아온 <만추>를 4K로 리마스터링한 버전 <만추 리마스터링>이 김태용 감독과 함께하는 GV를 개최해 특별한 만남을 기대케 한다.**

[제작: 빅뱅컨텐츠㈜ | 제공:씨네라인 월드㈜ | 배급: ㈜에이썸 픽쳐스 |감독: 김태용 | 출연: 현빈, 탕웨이 외 | 개봉: 2023년 11월 8일]

**11/10(금) 김태용 감독 스페셜 GV 개최!**

**<만추 리마스터링>을 기다려온 관객들과의 특별한 만남!**

** 사람, 의류, 인간의 얼굴, 흑백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만추 리마스터링>은 감옥에서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얻은 여자 '애나'(탕웨이)와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 '훈'(현빈)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그린 영화 <만추>를 4K로 리마스터링한 버전**으로 재개봉을 맞아 관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김태용 감독이 GV로 극장을 찾는다.

오는 11월 10일(금)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오후 7시 30분 상영 후 진행될 GV에는 김태용 감독이 참석해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12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로맨스 명작임을 입증하듯 GV 상영 회차는 예매 오픈 당일 매진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기대케 했다. 개봉 당시 김태용 감독은 <만추>로 제20회 부일영화상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며 그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영화적 순간을 포착해 내는 등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김태용 감독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작품인 <만추>를 이 계절 다시 만날 수 있어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GV는 **“어떤 사랑은, 가을날의 짧은 며칠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작품에 대한 애정이 담긴 평을 남긴 바 있는 백은하 배우 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아 김태용 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개봉을 기념해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굿즈도 마련했다. CGV는 영화의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소장할 수 있는 필름마크를 개봉 1주차 관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2주차에는 시나리오 카드를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매 관객 전원에게 특별한 굿즈를 증정하는 11월 9일 디깅타임 회차에서는 한정판으로 제작된 아트 포스터 2 종을 증정한다. CGV 아트하우스에서 관람한 관객들에게는 탕웨이의 사인이 담긴 A3 포스터를 증정한다. 씨네 Q에서는 특별히 영화의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스페셜 티켓을 제작해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재개봉을 맞아 김태용 감독과의 GV를 개최하며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예고하는 로맨스 명작 <만추 리마스터링>은 오는 11월 8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영 화 정 보**

**제목** 만추 리마스터링

**제작** 빅뱅컨텐츠㈜

**제공** 씨네라인 월드㈜

**배급** ㈜에이썸 픽쳐스

**감독** 김태용

**출연**      현빈, 탕웨이 외

**개봉**     2023년 11월 8일

**관람등급** 15세이상관람가

**러닝타임** 114분

**시놉시스**

수인번호 2537번 애나. 7년째 수감 중, 어머니의 부고로 3일간의 휴가가 허락된다.

장례식에 가기 위해 탄 시애틀행 버스, 쫓기듯 차에 탄 훈이 차비를 빌린다.

사랑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그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

**“나랑 만나서 즐겁지 않은 손님은 처음이니까, 할인해 줄게요. 오늘 하루.”**

훈은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며 억지로 시계를 채워주지만 애나는 무뚝뚝하게 돌아선다. 7년 만에

만난 가족도 시애틀의 거리도, 자기만 빼놓고 모든 것이 변해 버린 것 같아 낯설기만 한 애나.

돌아가 버릴까? 발길을 돌린 터미널에서 훈을 다시 만난다. 그리고 장난처럼 시작된 둘의 하루.

시애틀을 잘 아는 척 안내하는 훈과 함께, 애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2537번,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름도 몰랐던 애나와 훈. 호기심이던 훈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표정 없던 애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 오를 때쯤,

누군가 훈을 찾아 오고 애나가 돌아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는데...